

[인터뷰] 가르침에 대한 성찰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교수와 학습의 효과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 테크놀로지 기반의 교수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센터는 서울대학교에 적절한 온라인 교육 형태는 온라인 교육과 교실 수업을 혼합하는 'Blended e-Learning'이라 판단하고, 이러한 교수 학습 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Blended e-Learning에는 VOD형, WBI(Web Based Instruction)형 등의 다양한 강좌 형태가 이용될 수 있다. 본 센터는 교수자들이 이와 같은 강좌를 제작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5년 1학기 에 허성도 교수(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가 본 센터의 지원을 받아 WBI형 콘텐츠로 개발한 「중국어 입문 1」과 「중국어 발음 기초」가 학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본 센터는 허성도 교수에게서 성공적 인 웹 강좌개발을 위한 조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허성도 교수의 경험은 앞으로 e-Learning을 활용한 강좌 개발에 참여할 교수자들에게 좋은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문대학 교수님들은 일반적으로 멀티미디어와 친하지 않으실 것 같 은데요,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강좌 개발에 참여하시게 된 동기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도:

1972년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
197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취득
198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취득
1980년~1985년 충남대학교 중어중
문학과 교수
1985년~현재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
과 교수

저도 멀티미디어와 친하지는 않지만 컴퓨터가 인간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일을 대신해줄 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는 인식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의 중에는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워주고 학생과의 토론을 유도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일방적인 지식 전달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요. 제 생각에는 외국어 강의가 그렇다고 봅니다. 중·고등학교 때 중국어를 배우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어 강의가 여기에 속합니다. 외국어 강의에서는 학습 내용을 반복적으로 들려주며, 학생 하나하나의 발음이 정확한지를 확인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e-Learning이라 생각하고 강좌 개발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강의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제가 개발한 두 강좌는 모두 언어를 다루는 강의입니다. 이런 강의에서 학생들은 첫째,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지식을 스스로가 소화해야 합니다. 둘째, 학생들이 표준 발음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외국어 교육에서 발음 훈련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강의시간에는 시간 제약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발음 하나하나에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많이 하는 말이지만, 중·고등학교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말하고 듣고 쓰는 능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어 교육, 특히 영어 교육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학생들이 반복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이 그 이유의 하나이지요. 저는 강사 시절 대만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곳에서 중국어를 매우 훌륭하게 구사하는 프린스턴대학의 Asian study 전공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저는 프린스턴대학과 하버드대학의 중국어 강의의 커리큘럼을 조사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대학들의 중국어 강의는 학생들이 강의 외에도 일주일에 적어도 8시간 이상은 반복 훈련을 해야

만 강의를 따라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e-Learning을 활용한 강의는 선생님의 강의를 계속 듣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외국어 교육의 큰 약점을 보완해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교실 강의는 학생들이 복습이나 예습 중에 부딪힌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간으로 채워진다면 훨씬 창의적이고 효과적이 되겠지요.

e-learning을 활용한 강의의 장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개발하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뜻 개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강좌 개발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우선은 유창한 발음보다는 정확한 발음을 교육시키는 방법에 대해 제일 고민하였습니다. 정확한 발음을 구사할 수 있어야 자신이 한 말을 상대가 이해해서 반응을 하게 되니, 신이 나고 스스로 격려가 되어 더 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학생의 수준에 맞추어서 아주 천천히, 조금 천천히, 정상적 속도, 약간 빠른 속도 등으로 구분된 자료를 올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자부합니다.

다음으로 문법에 관해 말하자면, 문법 지식은 말하는 것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어 교육에서 학생들은 꼭 필요한 문법 지식만을 전달받으면 되고, 여기에 교수자의 보충 설명만 있다면 학생 스스로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 수업시간에 절대 문법 사항을 강조하지 마시라고 부탁합니다. 그럴 시간이 있다면 학생의 발음을 한번 더 들어주시고 읽어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개발한 강좌에서는 상세한 문법 사항을 텍스트 파일로 구분하여 올려두었습니다. 문법에 익매이지 않고 말을 배울 수 있게 한 것이지요. 또 어느 정도 강조되지 않아도 되는 문법들도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두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문법 사항도 난이도를 달리해서 구분해두었습니다. 어법에 관심이 많다가나 탁월한 언어 능력을 타고난 학생들에게는 고급의 정보를 제공하고, 문법 사항을 크게 중시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하자는 것이지요.

온라인 컨텐츠 개발은 교수법을 개선하고 학습 능력을 제고하며 교육 환경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됩니다. 선생님께서는 개발하신 강좌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요.

학기가 시작되기 2주 전에 강좌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제가 개발한 웹 강좌의 구성과 활용 방안에 관하여 세미나를 합니다. 강사 선생님들께서 교실 강의를 하실 때 주의할 점을 소개하는데, 특히 학생들이 교재의 내용을 오십 번 이상 미리 듣고 수업에 들어오도록 유도하라고 부탁합니다. 매시간 10분 정도 쪽지시험을 보아, 학생들이 미리 발음을 듣고 기본적인 사항을 익히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됩니다. 그러면 강의시간에는 곧장 웹 강의에서 들은 내용에 대한 의문 사항, 혹은 사전과 다르게 발음하는 경우에 대한 원리를 설명할 수 있지요. 웹 강좌는 학생의 발음을 확인해줄 수 없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학생의 발음을 확인, 교정하거나 의문 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WBI(Web Based Instruction)형 강좌는 학점 강좌는 아니지만 수업 보조 자료로서 가치가 큽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강좌를 개발하시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인지요.

웹 강좌 개발은 교실 수업의 경우보다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어법 사항이나 예문 등을 모두 미리미리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놓아야 하고, 발음이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녹음해야 하고, 교재에서 다룬 어휘가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코퍼스(corporus)를 구축해야 하지요. 저는 코퍼스 구축을 위하여 각종 소설·수필·희곡 등을 조사하였고, 한 단어를 입력하면 이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가에 대한 정보가 나오도록 대략 천만 자를 입력해두었습니다. 강의를 녹화할 때에도 매우 긴장이 됩니다.

어렵게 개발한 자료의 법적 보호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평생 걸려서 개발한 노하우나 지식도 있을 수 있고, 과목에 따라서는 특허를 내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적소유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과 인문학적 지식의 상당 부분은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데, 동영상 강의에 대한 지적소유권이 보호되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된다면 보다 많은 교수들이 강좌 개발에 참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선생님께서 강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선생님의 교육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 3학년 때부터 교수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갖게 되었고, 만약 교수가 된다면 저와 같은 강의를 하는 외국의 저명한 대학 교수들에게 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문학 강의야말로 강의자의 노력에 따라서 세계 수준에 갈 수 있고 이는 다른 말로 하면 국제 경쟁력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교수자의 연구와 노력이 관건이지요. 그래서 저는 늘 보다 효과적인 설명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합니다. 제가 생각한 것 한 가지는, 언어마다 사유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로 인해 표현의 차이가 생긴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발음을 설명할 때도 학생들이 익숙한 모국어와의 비교를 통해 이해시키면 훨씬 쉬워집니다. 같은 ‘아’ 발음이라도 우리말 모음에서의 ‘아’ 발음과 중국어에서의 ‘아’ 발음은 다릅니다. 발음의 차이가 혀의 위치, 입 벌리는 정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설명하면 학생들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많이 찾아내려고 궁리합니다.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십니까?

저는 학기 중반과 말기, 이렇게 한 학기에 두 번, 수업에 대한 의견을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수업에 대한 장단점을 지적하라고 하니까 단점은 언급하지 않아서 요즘은 수업의 단점을 지적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의견을 보면 제가 상상도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의 어투가 너무 단정적이라서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 혹은 “질문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질문할 시간을 준 적이 없다” 등과 같이 저의 습관 자체를 문제삼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들이야 말로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므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강의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e-Learning을 활용한 다양한 온라인 강좌의 필요성은 무엇이며 e-Learning 교육이 서울대학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강의가 웹을 활용하는 경우, 보다 높은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파트테론 신전을 소개할 때 신전의 상하, 좌우의 모든 모습을 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통하여 생생하게 전달하면 좋겠지요. 처음 개발하는 과정은 매우 힘들지만 일단 강좌를 개발한 후에는 부분적으로 수정하면서 보완해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교수들은 e-Learning을 활용한 강좌의 기본 개념에 익숙하지 않으며 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교수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안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Learning을 활용한 강좌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외국의 좋은 사례나 모델 강좌를 보여주어서 웹 강의가 보다 친근하고도 꼭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웹 강좌는 서울대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이나 교포들 중 서울대학교의 강의가 어

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들에게 우리 대학의 좋은 강의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특히나 발명, 저서를 내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공개가 가능한 강의라면 언젠가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서울대학교에 기대하는 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교실 강의에서는 학생들의 의견만이 문제가 되겠지만, 공개 강좌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판에 열려 있기 때문에 개선의 가능성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또 공개 강좌로 인해 교실 강좌가 자극을 받게 될 경우, 일부 공개 강좌의 운영이 일종의 영상 사업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어느 것이 우리 대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는 심각하게 토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이희원(서울대학교 교수학부교수학습기법센터 학습지원부 선임연구원)

* 허성도 교수님이 기발한 WBI형 강좌는 <http://ctclass.snu.ac.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신 허성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